



남원소방서, 시민 강창구씨에 소화기 더블 보상 수여

남원소방서는 지난 6월 발생한 주택 화재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화산을 막은 시민 강창구(41) 씨에게 7월 7일 소방서장 표창과 '소화기 더블 보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낮 12시 39분경 남원시 금지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당시 인근 주유소에서 근무 중이던 강창구 씨는 화재와 연기를 목격하자 지체없이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1대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압에 나섰다.

불이 난 창고 인근에는 고령의 어르신(78)이 거주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강씨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초기 대처 덕분에 불길의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19HERO 구급대 선정 대원들 표창

남원소방서는 7월 7일, 2026년 상반기 '119HERO 구급대'로 선정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서장 표창과 특별 포상휴가 1일 및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9HERO 구급대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 및 예후에 크게 기여한 대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구급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수상자는 식정119안전센터 소속 △김민희 소방장 △이원철 소방사 △김재원 소방사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위급한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ROSC)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관촌면 지사협,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 관촌면지사협화보조합협의회(공동위원장 소지현, 조래춘)는 지난 2일 제철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신대 로타리 클럽의 메추리알 후원으로 훈훈함을 더했으며, 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열광이김치, 파디고추 조림 등을 정성껏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래춘 민간위원장은 "건강한 한 끼 식사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으며, 맛있게 드시고 올려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전북대병원 연구진, 희귀 기생충 질환 진단 기준 제시

소아외과 정연준·감염내과 이창섭 교수팀, 스파르가눔증 최대 50년 잠복 가능성 확인

전북대학교병원 연구진이 희귀 기생충 감염 질환인 스파르가눔증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임상적 기준을 제시한 연구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에 발표하며 국제적인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연준 교수



이창섭 교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소아외과 정연준 교수팀의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됐다고 7일 밝혔다.

NEJM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만을 선정해 게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희귀 기생충 감염 질환인 스파르가눔증을 주제로 한 임상 이미지(Images in Clinical Medicine) 연구다. 책임저자인 정연준 교수는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질환의 특징과 진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스파르가눔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스파르가눔이 인체에 최대 50년 가까이 잠복한 뒤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과거의 식습관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의료진이 환자의 장기간 생활력과 식이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도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2015년 쯔쯔가무시증 연구와 2018년 비브리오패혈증 연구에 이어 이번 논문까지 개인 통산 세 번째 NEJM 논문을 게재하며 감염병 분야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연준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NEJM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가 스파르가눔증의 임상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진단과 치료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은 병원의 연구 경쟁력과 의료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임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제3회 남원춘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성료

제3회 남원춘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가 7월 7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남원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골프협회 남원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단체전(4인)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단체전은 혼성 4인조 18홀 포섬 플레이 방식으로, 개인전은 18홀 샷인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각각 치러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완주군지부·운주농협, 취약농가 주거환경 개선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운주농협(조합장 정성권)은 관내 고령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NH농촌현장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NH농촌현장봉사단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업인 행복플랜터(1522-5000)'를 통해 접수된 돌봄대상자 중,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 취약농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농협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지원을 받게 된 운주면의 한 농가는 노후화로 벽지와 장판이 심하게 훼손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NH농촌현장봉사단은 전문 시공업체와 함께 노후된 도배와 장판을 전면 교체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경찰서,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는 7일 경찰서 금산홀에서 각과·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치안 성과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정량·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 분석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과 교통안전·사회적약자 보호 등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추진 과제를 공유하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순창경찰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과 분석과 점검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30회 시각장애인 오감만족행사 개최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순창지회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순창지회(지회장 옴은순)는 7일 장미가든에서 시각장애인 회원과 활동지원사, 기관 및 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시각장애인 오감만족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일깨우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지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노래자랑과 문화행사가 펼쳐져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화행사는 장애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옴은순 지회장은 "오감만족 행사를 위해 도움 주신 분들과 시각장애인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



지 깊이 공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순창지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점자교육, 정보 제공,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늘 체험한 오감 활동이 회원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애로 인한 불편한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깊이 공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홍지지사

010-6645-9935

중앙지사

010-9088-66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829-6677

익산지사

6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6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